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35회 사랑의마당축제’가 4월 27일, Whittier Narrows Recreation Area에서 열렸다. 이번 사랑의마당축제에는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28개 교회와 12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3면]



기독일보 창간 15주년 감사예배 및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제3대 이사장에 존 김 회장이 취임했다.

“북핵 해결의 열쇠는 ‘북한 인권’ 문제 제기”

[2019 북한자유주간] 헤리티지재단 토론회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현재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 탈북단체 대표들에게서 나왔다.

이들은 특히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북한 시민사회가 과거 소곤거리던 시절을 지나 웅성거리는 단계에 이미 진입했다”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며 변화기를 맞고 있는 북한 내부 시민사회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제16회 북한자유주간 3일째인 4월 30일 오후 2시(현지시간)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에서 ‘북한 인권과 안보 위협 사이의 정책 격차 좁히기’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탈북자 단체 대표들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허광일 위원장(북한민주화위원회)은 “북핵은 김정은의 마지막 생

존 수단으로 북한 정권의 운명과도 직결돼 있으며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은 김정은 독재 정권이 종식할 때 이뤄질 것이고 이는 북한인권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고난의 행군 때 350만 명의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는데 이 대참사에 대해 우리 탈북자들은 살인 독재자 김정일에게 의한 인위적인 대학살이라고 이야기 한다”면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 해결에서 부득불 인권 문제가 중점에 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 대한 세력이 힘을 얻게 될 때 든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번째 연설에 나선 김흥광 대표(NK지식인연대)는 북핵과 인권 문

제에 대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면 핵도 없어진다. 북한이 민주화되면 핵무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면서 “북한 정권에서 핵무기를 떼어내기 위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인권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거나 이동의 자유, 해외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라고 하면 북한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전망했다.

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성민 대표(자유북한방송)는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이 안고 있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인신매매, 위조 화폐, 마약, 납치, 국군포로, 정치범수용소 등은 모두 인권 문제”라면서 “한국정부나 미국정부가 북한과 대화하면서 반드시 인권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했다. [2면에 이어서]

기독일보 제3대 이사장

존 김 회장 취임

“파수꾼 된 사명 다하도록 노력할 것”

기독일보 제3대 이사장에 존 김 회장이 취임했다. 2019년 4월 30일 마가교회에서 드린 창간 15주년 감사예배 및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제2대 이사장 임덕순 장로가 이임하고 제 3대 이사장 존 김 회장이 취임하고 100여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기독일보의 사역을 하나 님께 감사드리고 축복했다.

이날 예배는 강태광 목사(월드웨 어USA 대표)의 인도로 시작돼 김종용 목사(나눔과섬김의교회)가 성경봉독하고 김관진 목사(남가주목 사회 회장)가 대표기도를 했다. 바리톤 장상근 교수(미주총신대)가 특별 찬양을 부르고 조희서 목사(서울씨티교회)가 설교했다. 이어 김근수 목사가(OC목사회 회장) 헌금기도를 하고 류당열 목사(남가주교회 중경회장)가 축도를 했다.

이취임식 및 후원이사 위촉식에서는 2대 이사장 임덕순 장로가 이임하고 3대 이사장 존 김 회장이 취임했다. 임덕순 장로는 이임사에서 “물질세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영

적 세계밖에 없다. 이 세계를 전하는 기독일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존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교회의 연합과 회복, 하나됨을 위해 더욱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수호하는 파수꾼 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내가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성구를 붙들고 기독일보가 복음을 전파하는 신문이 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원이사로 서상석(PROCAP Inc 대표), 박영희(소반식당 대표), 피터 백(엑셀프린팅 대표) 이사 등 기독 사업가들이 위촉되었으며,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회 회장)와 이서 목사(OC교회 회장),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가 축사를 전했고,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회장)와 이순희 목사(백송교회)가 격려사를 전했다. 마원철 목사의 축사와 안기정 목사(본지 사업본부장) [2면에 이

번역/공증/파산

법무사 ~

- 학교설립 / 인가 전문
 - 연방정부 SEVIS 유학비자 신청
 - 신학/경영대학, 사립초중고교, 홀스쿨링, 유치원
- 교역자 누구나 신학사, 석사, 박사 과정 개설 가능

생활법률 속성해결사
T: (213)999-4379
info@wpaus.com

EG Global LDA Service
3407 W 6th st, #614 LA/LDA:2018047569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가격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입니다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6월 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기독교 방송 CBS 아메리카가 4월 27일 오후 5시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개국감사예배를 드렸다.

“CBS TV, 하나님을 지우려는 미국,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길”

기독교 방송 CBS 아메리카(Ch 18.7)가 4월 27일 오후 5시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에서 개국 감사예배를 드리고 개국 기념식과 개국축하행사를 열었다.

LA복음연합감리교회 찬양팀의 찬양으로 문을 연 개국감사예배는 김영균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다.

샘신 목사가 대표기도하고 주제 임 목사(살롬기도원 원장)의 말씀 봉독 후 박성근 목사가 “큰 나무의 비전”(마13:31~32)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심어지면 큰 나무로 자란다. 씨앗은 한끼 밥상에 올려지는 작은 나뭇잎이 될 수 있고,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CBS 방송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한끼 밥상 위에 오른 후 사라질 수도 있고, 위대한 나무로 쓰임 받을 수 있다. CBS가 큰 나무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이루길 바란다.”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먼저 바른 곳에 심어져야 한다. CBS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심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자라게 하신다. 두번째는 바른 영양분이 필요하다. 교회 사역이든 방송 사역이든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 이 지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원할 때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 세번째, 복음을 선포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길 잃은 다음 세대에게 살아야 할 이유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에서 하나님 지우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

다. 미국이 아무리 뛰어나고 군사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해도 하나님을 지우면 아무것도 없다. 이 위기의 미국 땅에 진리와 복음을 전해서 미국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

현금 시간에는 정경주 목사(찬양 사역자)가 봉헌송을 하고, 박일영 목사(나성하인연합장로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바로 이어서 김영균 장로의 사회로 개국 기념식이 시작됐다. 한용길 한국CBS 사장은 “CBS는 한국 공교단이 연합해 세운 교계연합 선교기관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반자로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길 부탁한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와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가 축사를 전했다.

송 목사는 “군사 정권의 시대, 정부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많았음에도 CBS는 할 말을 하고 정도를 걸어들었다”며 “이민사회 자체가 말이 설고 눈이 설고 낮이 설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에는 한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힘들어 하는 이민자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매체로서 쓰임 받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김광수 목사는 “21세기 하나님이 주신 선교도구인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개국 기념식에 이어 최인혁(한국 찬양사역자연합회 회장)의 파워풀한 찬양으로 개국축하공연이 시작됐다. 그는 <인생한번>과 <복 있는

사람은>을 찬양했다. 다음 순서로 복화술연구소 안재우 소장이 트렁크 가방을 들고 무대에 올랐다. 그는 트렁크에서 ‘깜여사’라는 퍼펫 인형을 꺼내더니 깜여사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공연을 시작했다.

깜여사: “당당하게 살아야 돼.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당하게 살아야지. 안그렇습니까?”

안재우: “깜 여사님은요?”

깜여사: “나는 당당해.”

안재우: “왜 그렇게 당당하세요?”

깜여사: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당당하지.”

한참 공연을 하던 중 그는 인형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인형에게서 손을 빼면 무슨일이 일어날지, 관객들에게 물었다.

“깜여사가 알든 모르든 이 모든 것은 손이 한 것입니다. 깜여사 뒤에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송정미 찬양사역자가 ‘주의 성령’과 ‘축복송’을 열창하며,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에 CBS방송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간증했다.

이번 개국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은 국회조찬기도회, LA 총영사관, 은혜한인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주안예교회 등 남가주 지역 23개 교회 및 단체가 후원했다. CBS는 1954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민영방송으로 FM, AM 라디오, TV방송 매체로 한국 복음화에 기여해 왔다.



북한자유주간 3일째인 30일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북핵과 북한 인권에 대한 토론회에서 탈북자 대표들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허광일 위원장, 김홍광 대표, 김성민 대표.

[1면 ‘북핵해결의 열쇠’ 에 이어서] 김 대표는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탈북자 입장에서 매우 긴박한 과제”라면서 “북핵만 포기하면 현재 김정은 체제도 인정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협상의 큰 골자였지만 우리 탈북자들은 이런 딜에 반대한다. 인권 문제는 반드시 거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탈북자단체 대표들은 장마당과 같은 현재 북한 시민사회의 변화와 관련, 민중봉기가 가능한 상황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해 관심을 모았다.

허광일 위원장은 “장마당을 통해 외부정보가 자연스럽게 유입됐고 이는 북한사회를 꾸준히 변화시켜 왔다”면서 “실제로 장마당을 시시때때로 단속하는데 대해 북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한 것은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 당국이 한류를 비롯한 외부 정보 반입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제 그 정보 확산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는 단계에 와 있다”면서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운명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광 대표는 북한 사회에 변화가 계속될 경우 주민들에 의한 혁명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혁명이 일어나려면 사회가 크게 세 단계로 변해야 하는데 첫째는 속삭이는 사회였다가 두 번째는 대놓고 소통하는 사회, 그리고 마지막이 행동하는 사회”라고 했다.

현재 북한 사회의 단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꾸준히 접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 사회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 사회는 속삭이던 단계를 일찍이 벗어나 웅성거리는 사회로 진입했고 이제 공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행동하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대원 기자



(왼쪽부터)기독교일보 이인규 사장, 존 김 이사장, 후원이사 서상석·박영희·피터 백 대표

[1면 ‘기독교일보 이사장’ 에 이어서]의 광고, 기독교일보 이인규 사장이 비전선포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축사를 한 목회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역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화해의 비전을 이루는 기독교일보가 되길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격려사를 한 목회자들은 “그 동안 남

가주 사회에 쉬지 않고 신문을 발간해온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며 “칼보다 무서운 것이 펜이라고 했는데, 악한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신문으로 계속해서 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신임 이사장 존 김 회장(세리토스 선교교회)은 비즈포스트그룹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본지 후원 이사로 섬겼다. 토마스 맹 기자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임상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네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IN 뉴스 라디오 등 이민칼럼/상담 경력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www.davidlimlaw.com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2018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지원금 수여식에서 오픈뱅크 및 오픈청지기재단 관계자들과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수여식을 마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은 총 57개 비영리단체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단체 57곳 선정 8년 누적 비영리단체 지원금액 253만달러, 북가주에서 시작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2018년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Open Stewardship Program)을 통해 비영리단체 57곳을 선정해 지원했다.

매년 커뮤니티를 향한 사회환원에 힘쓰고 있는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 재단은 24일 2018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의 수혜단체로 총 57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금 수여식을 지난 4월 25일(목) 오후 6시에 오픈뱅크 웨스턴지점(550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에서 개최했다. 오픈청지기재단은 오픈뱅크가 매년 수익의 10%를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재단에 전달하는 기부금 중에서 2018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및 기타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총 40만달러를 지원했다. 이로써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지난 8년동안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커뮤니티를 지원한 금액도 250만달러(253만달러)를 넘어

서게 됐다. 오픈청지기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말까지 2018년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총 75개 단체가 신청했고 이 중 57개 단체를 수혜단체로 선정한 것이다.

재단측은 올해 심사에서도 커뮤니티의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정직하고 성실한 단체를 선별하려고 노력했으며 지난해 수혜단체들의 경우 지원금의 사용부분을 자세히 심사했고 신규 신청 단체들의 경우 단체의 투명성과 프로젝트의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018년 프로그램에서는 지난해 오픈뱅크의 북가주 첫 지점인 산타클라라 지점이 문을 열게 되면서 오픈청지기 프로그램도 북가주에서 확대 시행했으며 이번에 북가주에서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2곳이 선정돼 지원하게 됐다. 오픈청지기재단의 도은석 이사장은 “재단에서 늘 고민하는 부분은 어떻게 효

과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많은 부분을 논의할 수 밖에 없고 선정과정 및 심사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동안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많은 발전과 성장을 했는데 오픈청지기 재단과 오픈청지기 프로그램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뱅크의 민 김 행정장도 “오픈뱅크는 지난해 남가주에서 벗어나 북가주에 첫 지점을 오픈하면서 북가주에서의 사회환원을 시작했고 이번에 지원금도 전달했다.

올해는 오픈뱅크가 텍사스주에 진출해 캐플턴 지점을 오픈한다. 따라서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뿐만 아니라 텍사스주에서도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를 찾아 사회환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쉐어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사무실 이전 감사행사를 25일 오후 5시 아로마 윌서센터 5층 대연회장장에서 개최했다.

월드쉐어 15주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전력 다하길” ‘임마누엘라’ 향한 도움의 손길 이어져

월드쉐어(권태일 목사 설립)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사무실 이전 감사행사를 25일 오후 5시 아로마 윌서센터 5층 대연회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감사행사에서는 찬양예배와 축하행사, 그리고 만찬과 ‘임마누엘라’라는 이름의 소녀 돕기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날 1부 예배는 사회에 양경선 목사(다민족기도대회 사무총장), 기도예 헬렌 김 목사, 성경봉독에 존 강 목사(남가주 연합교회), 특별찬양에 남가주목사장로부부 찬양단, 설교에 곡건섭 목사(예은장로교회), 축도에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나리교회) 순으로 진행됐다.

2부 감사와 축하 순서에서는 사회에 안신기 목사(남가주교회 총무), 축하 찬양에 레위남성찬양단, 대화사에 이정숙 목사(월드쉐어 이사), 축사에 송정명 목사(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축하메세지에 권태일 목사, 동영상 상영, 광고와 인사에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대표), 헌금 및 후원금, 폐회 기도예 김영구 목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특별히 선천성 휘귀 질환을 앓고 있는 한 소녀가 나오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후원의 손길을 펼치는 시간이 있었다.

인사말을 전한 월드쉐어USA 대표 강태광 목사는 “아이티의 ‘임마누엘라’는 생후 6개월의 아동으로 선천성 휘귀 질환을 앓고 있어 먹은 음식을 토하고 있다. 아이티 김영숙 지부장이 특수 분유를 먹이며 돌고 있지만 여전히 위급한 상황이다”라며 “1만 불이 있으면 아이와 아이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

오전에 ‘이 아이에게 희망을 허락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줄 믿는다.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한 아이가 소망을 얻어 새출발의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행 17:1-9)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곡건섭 목사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해당이 되는지 밝히고 있다. 시대가 변해도 교회와 우리 삶에서 말씀 선포 사역이 집중되어야 한다”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은 이웃사랑이다. 교회가 전도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전력을 다하는 월드쉐어가 되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일어나길 축원한다”고 밝혔다. 팜플렛 광고 수입 및 감사예배 시 모아지는 헌금 등 모든 수익금을 임마누엘라를 돕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월드쉐어는 밝혔다.

이날 행사는 목사장로부부찬양단과 레위남성성가단이 축하찬양을 하여 은혜를 더했으며 200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해서 월드쉐어의 15주년을 축하했다.

국경 없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단법인 월드쉐어는 가난과 재난으로 고통 당하는 이들에게 민족,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사랑을 전하고 있다. 월드쉐어는 현재 전세계 26개국에 고아들을 위한 그룹 홈과 1:1결연, 지역개발사업, 의료보건사업, 식수위생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은 NGO 단체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마당축제’ 개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35회 사랑의마당축제’가 4월 27일(토), 사우스엘몬테(South El Monte)에 있는 윌티어내로우 공원(Whittier Narrows Recreation Area)에서 열렸다.

토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와 해피빌리지(KAVC 미주한인봉사단)에서 공동주관하고 Cadman Company와 GBC미주복음방송, Cathay Bank의 특별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사랑의마당축제에는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28개 교회와 12개 단체들이 협력하여 행사를 알차게 꾸며 주었다. 1부 순서로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카리스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에서는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의 환영인사와 ‘소녀러스 싱어즈’의 특송에 이어 고창현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가 ‘천국에서 큰 사람(마 18:1-5)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었다. 또 내빈소개 및 감사패 증정이 있었고, ‘남가주사진작가협회’의 단체사진 촬영에 이어 토랜스제일장로교회 김준식 장로가 기도해주었다.

각 부스에 마련된 맛있는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계속 진행된 2부 순서에는 댄스와 발레공연, 사물놀이 및 CCM 릴레이, 마당운동회, 선물추첨 등 각종 재미있는 게임 등으로 참석한 발달장애인들과 가족, 그리고 봉사자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주최측은 “올해도 여러 교회, 단체의 정성어린 노고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사랑의 마당축제 참여 교회와 단체를 명단은 아래와 같다.

Acts Global Church / ANC온누리교회 / 가주남교회 / 감사한인

교회 / 기쁜우리교회 / 나성영락교회 / 나성한인교회 / 남가주사랑의교회 / 남가주살롱교회 / 동양선교회 / 드림교회 / 로뎀장로교회 / 베델한인교회 / 사랑의빛선교회 / 선한목자장로교회 / 선한청지기교회 / 성마리아엘리자벳천주교회 / 세리토스장로교회 / 샌디에고한빛교회 / 에브리데이교회 / 인랜드교회 / 은혜한인교회 / 장애우사랑교회 / 주님의빛교회 / 주님의영광교회 / 총현선교회 / 토랜스제일장로교회 / 토랜스조은교회 / 남가주밀알선교단 / 물댄동산장애인선교회 / 살롱장애인선교회 / 작은예수회 / 평화의집 / 한미특수교육센터 / Circle of Friends / Lanterman Regional Center / PAI / Partners for Potential / This ability orchestra foundation / Friends for special needs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에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리스해~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강원재난피해대책 미주후원연합회를 조직하며!



청정지역 천혜강원도의 45시간의 산불은 사상자와 건물 500여채와 임야 530헥타아르, 약 축구장 740여개 의 규모를 태운 큰불로, 5개 시군(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어 재난특별지역으로까지 선정되었습니다.

강원도 이재민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자 남가주 교계와 교계단체, 사회일반단체들이 지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지난 4월 3일부터 모금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성금은 성금에 필요한 활동비나 사무용품 내지는 한국 방문 등 모든 제반 경비 일체를 각 단체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성금 모금 전액 100%를 모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회계 보고는 모금과 전달이 끝난 후 투명하게 보고 드리려 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모 금 일 자 : 2019년 4월 3일 ~ 5월 18일
- 모 금 방 법 : pay to the order-가칭 : Bank of Hope Acct# 6400-271-931 pay to the order-(영어약자 KWDS)
- 메일링성금 : Pay to order : KWDS 주소 : 6742 Sepulveda Bl. VanNuys Ca 91411 (Non Profit 구좌이므로 세금혜택을 받으십니다)

- 가 두 모 금 : 1차 모금 4월 20일 (토) 2차 모금 4월 27일 (토)
- 장 소 : 엘에이 김스전기
- 시 간 : 오전 11시 ~ 오후 3시
- 가 두 모 금 : 3차 모금 5월 4일 (토)

- **대회장: 한기홍 목사 (은혜교회 담임)** • **추진 위원장: 이병만 장로 외**
- 강원재난피해대책 미주후원연합회 일동**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10〉

실크웨이브 미션 위의 기름 부으심

미주에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성도들이 모여 2006년도에 탄생한 실크웨이브 미션은 처음엔 터키 선교사였던 김진영 선교사를 후원하는 모임으로 출발했다.

필자는 2007년도에 시작한 터키 연합중보기도회부터 실크웨이브미션과 함께 하여 지금은 운영이사로 섬기고 있다. 이제 13년이 지나며 돌아보면 매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선교회 사역마다 넘치게 부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도 첫 번째 터키와 튀르크, 쿠르드 종족의 복음화를 위한 연합중보 기도회가 터키의 남부 지역인 안탈리아(성경 지명은 밤빌리아)에서 열렸다. 터키 현지 선교사들과 미주와 한국에서 모인 283명이 3박 4일간 기도와 찬양, 말씀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그 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기억이 난다.

매년 연합중보기도회의 참가 인원은 늘어 갔고, 2010년 에베소 광장에서 모였던 연합중보기도회에는 2,000여 명이 모여 에베소의 밤을 영적으로 뜨겁게 달구었다. 그 후에도 안디옥, 앙카라, 갑바도기아 등의 지역을 돌며 매년 연합중보기도회는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연합중보기도회를 이어 받아 이제는 현지인이 주관하는 연합중보기도회로 성장했다.

그러던중 시리아 내전이 발발했고, 수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로 몰려 왔다. 이에 실크웨이브 미션의 사역도 방향의 전환점을 맞았다. 이제 연합중보기도회는 현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관하면서 우리는 같이 참여하였고, 터키 전역에 흩어져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돌보는 구제와 교회개척 사역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B & B” 운동이라 하여 bible과 bread의 사역으로 난민들을 돕다가 점점 실크웨이브 미션의 비전이 그 이슬람의 땅에 교회 개척으로 이어졌다.

2019년 4월 현재 실크웨이브 미션이 후원하는 39유닛(가정이나 독신)의 교회 개척 사역자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들이 곳곳에서 열심히 교회개척 사역을 하고 있다. 터키 현지인 뿐 아니라 터키에 와 있는 시리아 난민교회 개척자들, 이란교회 개척자들, 이집트 현지 교회개척자들로 여러 지역의 교회개척사역자들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후원하면서 선교회의 일이 쉽없이 발전하고 있다.

2019년도에도 지난 4월 19일, 성금요일날 터키로 향하는 선교팀을 시작으로 터키와 이집트, 이라크 지역의 선교팀들이 계속해서 선교지로 향했다. 한 팀은 미주 여러 교회에서 킹덤스쿨을 통해 교육 받고 훈련 받은 킹덤아웃리치팀이다. 그들은 터키, 이집트, 그리고 쿠르디스탄 등의 선교지를 돌며 복음을 증거하고 이스탄불에서 4월 30일부터 열린 연합중보기도회에 참여했다. 두 팀은 중앙 아나톨루 지역의 페르시아권 난민들의 현지를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구제하기 위해 떠났다. 세 팀은 흑해지역을 선교하며 터키와 아랍어권 교회 개척자 가정 수련회를 참여하여 섬기게 된다. 네 팀은 터키의 동부아라랏 산의 지역인 반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게 된다. 팀들은 아르메니아 지역 등을 돌고 마지막 실크웨이브미션의 리더십들은 이스탄불과 이집트에서 추가로 교회개척사역에 참여할 40번째 이후의 교회개척 사역자가 정들을 세우고 5월 말에 돌아올 예정이다.

이렇게 이슬람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단체로 자리매김을 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밖에는 드릴 것이 없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행복한 바보의사 장기려 박사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얼마 전에 부산 출신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지역만리 미국 땅에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반갑게 고향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공감대가 많았습니다. 송도제일교회, 복음 병원 등의 추억들을 나누다가 장기려 박사의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와 복음병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권사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고 필자도 장기려 박사의 삶과 신앙을 익히 아는 터라 제법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는 탁월한 외과 의사였고,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훌륭한 교육가였고,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인자한 어른이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러워하는 한국 의료 보험 제도의 초석을 놓으신 분입니다.

그는 1911년 평안북도 용천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이 설립한 의성학교를 거쳐 1928년 개성에 있는 송도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32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경성의전 외과학교실 백인제 교수의 조수로 의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백 교수는 장기려가 경성의전 외과학교실의 후계자로 남기를 바랐으나 그는 그 시절 엘리트 코스를 마다하고 평양으로 내려가 1940년 선교병원인 평양연합기독교병원 외과과장으로 부임하여, 본격적으로 의사로 활동했습니다. 이는 경성의전 입학 당시 불쌍한 환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의전에 입학하면서 치료비가 없어서 의사 얼굴 한번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940년 9월 일본 나고야 제국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45년 11월 북한 제1 인민병원 (평양도립병원) 원장, 1947년 평양의과대학 외과학 교수 겸 부속병원 외과 과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이 시기에 김일성의 맹장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월남 후 195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 교수, 1956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 교수 겸 학장, 1965년 서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 교수, 1976년 부산아동병원 원장 그리고 부산복음병원 원장, 청심자 병원 원장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1968년 한국 최초의 사실 의료보험조합인 부산 청심자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1976년 청심자의료원을 설립하여 환자 진료를 계속하였습니다. 1974년 한국간연구회 창립을 주도하여 초대회장을 맡았고, 부산 생명의 전화 설립, 장애자재활협회 부산지부 창립에도 앞장섰던 사회 운동가요, 한국 의료 복지의 기초를 놓았던 의료인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1943년 우리나라 최초로 간암 환자의 간암 덩어리를 간에서 떼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 1959년에는 간암 환자의 간 대량절제술에 성공을 하였답니다. 그는 간의 혈관과 미세구조 등에 대한 연구 업적으로 간질환 환자들

의 고통을 덜어주었으며, 당시 미개척 분야였던 간장외과의 발전과 의료 인재 양성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적으로 장기려 박사는 1976년 국민훈장동백장을, 1979년 막사이사이상(사회봉사부문)을, 1995년 인도주의 실천 의사 상 등 중요한 상들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년에는 당뇨병에 시달리면서도 백병원 명예원장으로서 집 한칸 없이 협소한 사택에서 지내면서 마지막까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박애와 봉사정신으로 인술을 펼쳤습니다.

자신은 당뇨병에 시달리면서도 무의존을 찾았고, 가난한 당뇨병 환자들은 돌보면서 자신을 돌보지 못하다가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에 84세의 나이로 당뇨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해 치료비를 대주며, 그나마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병원에서 몰래 도망가라고 문을 열어 주고 병원 원무과 직원들에게 혼이났었던 병원장이었습니다. 수십 년 의사 생활을 했지만 집 한 채 갖지 못하고 병원 옥상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복에 두고 아내와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독신으로 수절한 성자입니다. 복에 두고 온 가족들을 너무 그리워했지만 이산가족 상봉의 '특혜'는 거절했던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장기려 박사는 행복한 나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의 진료를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장기려 박사의 인격과 신앙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나눔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실천하며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각박한 세상에 시달리며 들려오는 잔인한 소식에 놀라면서 성산(聖山) 장기려 박사를 더욱 그리워합니다.

굿네이버스 나눔 토크 콘서트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미국법인 이사직을 맡고 있는 TimHaahs의 설립자 하형록 대표가 The Source가 주최하는 Thinkspiration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다. TimHaahs는 세계적인 종합 주차전문 설계 회사이며, 하형록 대표는 미국 정부 건축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꿈과 행복을 이루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회사 출범 20년 만에 미국 동부 최고의 건축설계회사로 성장시킨 사업가로서 겪은 경험들과 나눔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

할 것이다.

강연을 맡은 하형록 대표는 현대식 주차구조의 기준을 정한 회사를 세웠다. 자선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최근 국제 연합과 다른 국제 기구들에게 주차, 기반 시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세계적인 도전에 대해 나눔 예정이다.

Thinkspiration 은 이민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강연이다. 지난 Thinkspiration 이벤트에는 스포츠스타 박찬호, 국민강사 김미경, 교수 데니스 홍 등이 있다. 강연은 무료입장이다.

일시: 5월 11일 (토) 오후 5시 ~ 7시
장소: The Source OC, 694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문의: 877-499-9898, kr.goodneighbors.us, korean@goodneighbors.us



TimHaahs 설립자 하형록 회장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의 인생 **전부**가 바뀝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World Share USA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본문 요한계시록 7:9-17

성경 나오는 흰옷의 상징

신약성경에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철저히 회개하여 원죄와 자범죄에서 온전히 용서받은 성결의 상태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원한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된 영적신부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구원 얻은 자의 숫자의 의미

구원 얻은 자의 숫자에 대한 숫자풀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7:1-8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름이 열거되면서 한 지파에 만 이천명씩, 십사만사천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은 유일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2는 율법에 준하는 증인을 상징하며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는 동서남북에 들어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며 5는 다름을 통하여 전쟁하는 것이며 6은 666으로 끝나는 사탄의 숫자를 말하고 7은 삼위 하나님의 3과 이 세상의 4가 합쳐져서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연합했을 때 가장 완전한 것이라고 해서 완전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은 하나에서 열까지 짝한 수라고하여 만수(滿數)라고 하고 12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치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자 열둘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기를 기대하셨고 가롯 유다가 죽은 후에도 맛디아를 세우심으로 다시 열두 사도의 숫자를 세우게 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기대가 그들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구령의 성과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님의 기대의 수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 숫자로는 한 지파에 만이 천 명씩을 말하고 있지만 영적의미의 만이 천명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정한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사만사천명도 문자적인 숫자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령의 성과로 기대하시는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9절의 종려가지(월계수, Farm tree)는 올림피때 월계관을 만드는 잎사귀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마11:9-10)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종려가지를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나귀가 밟고 지나가도록 길 양쪽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이것은 환영을 의

미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의 구원 얻은 숫자가 아무라도 능히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앞에 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루도록 내어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구속하시어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까지 상속시켜 주시려고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속 장로는 목자를 통칭

13절에 “장로중 하나가 응답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에 기록된 장로는 목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1에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의 동생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인 사도요한도 요한삼서 1:1에 보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 하노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장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의미 : 애굽을 떠나 가나안까지

목회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선포하게 하시는 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체험을 주시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뒤에도 마귀와 짝하고 죄악에 휩쓸리고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와서 복음의 비밀인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죄책감에 몸부림치며 진지한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망각이 폐단이 되어 자신이 잘못된 일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라면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잊어버린 일까지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람의 입으로 시인하도록 해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이 회개는 성령이 하게 하시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 회개의 진실성은 하나님 앞에 100%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를 한 사람은 다시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해서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하기 때문에 흰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흰 옷을 더럽히지 말라

14절에 보면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죄악에 찌든 옷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회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홍같은 붉은 피에 더러워진 옷을 씻었는데 흰옷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아직도 공중 권세잡은 마귀가 행세하고 관치는 생지옥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하얗게 입혀주신 흰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와 노력이 부단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려 피 흘려서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시고 하얀 세마포를 입혀주신 것은 영원한 예수님의 영적 신부로 단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왕국에서 영광스러운 영적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에서 그분과의 인연을 지속하고 더욱 깊어지도록 원수 마귀들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이 마귀들이 우리들의 흰옷을 더럽히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마귀에게 굴복하여 흰옷을 더럽히고 나면 히브리서 6:4-6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

아 현재히 욕을 보임이라”고 한 말씀처럼 다시는 그 인생을 회개하게 할 제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과의 인연이 끊어 나는 것입니다.

목자를 주신 것에 감사

만약 목자가 없고 교회가 없다면 인생은 넘어지기 쉬운 수밖에 없고 천국에 가기 전에 마귀가 흰옷을 걸레처럼 더럽혀서 지옥에 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교회와 목자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목자가 진리정통하고 성령 충만하여 내세소망 절대적인 신앙으로 이끌어 준다면 이 시대에 참으로 복된 성도일 것입니다.

현세가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 더욱 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흰옷을 더럽히지 말고 믿음의 정절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 15절 이하와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 세마포로 단장한 흰옷을 절대로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는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육체적인 모든 고통들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신앙이 변질되면 그 흰옷은 금방 더럽혀지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세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힘있게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희어진 흰옷을 절대로 더럽히지 말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3301, Fax: (323)643-3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for the Church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광고 및 후원 문의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691),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어머니 사랑해요!”

50% - 80%까지
폭풍세일!

'와싸다'

반지천국 초저가 라인 총출동 퍼레이드!!



'물반 고기반' 최저 59불 부터 시작,

어버이날 맞이 공짜선물 이벤트!

500불 이상
구매고객

두줄 진주목걸이 증정

선물용으로 좋은
핵진주 반지, 브로치

고베펠이 마련한 경제적인 가격대의 일본산
핵진주 브로치와 반지 귀걸이등 마더스데이
2019년 신제품 최고의 선물!



경제적으로 부담없는 가격대의 제품부터 최고급 프리미엄 제품까지!!
총 3000여점의 다양한 제품 전시 할인판매!!



Helen Aiko 명품
진주 전시판매



마더스데이를 맞아 한국세공의 부담없는 가격대의 선물용 합성 칼라스톤 특별 기획전이 펼쳐집니다.
500여점의 다양한 디자인의 고베펠 칼라스톤 신제품을 만나보세요!



엘에이 한인타운 일정안내
일시: 5월 9일(목)부터 11일(토) 단 3일간
장소: 로텍스호텔 2층 특설매장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올림픽과 그래머시)



부에나파크 일정안내
일시: 5월 12일 (일) 단하루
장소: 홀리데이 인 부에나파크 (91번과 비치 만나는곳)
Holiday Inn Buena Park Garden 1 Room
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KOBE JEWEL GROUP
Rings Heaven



GIA SOPHIA Y KANG
GIA 진주보석 감정사
GEMOLOGICAL INSTITUTE OF AMERICA
미국 GIA 진주보석 감정사 매니저가
고객님의 합리적인 쇼핑을 도와드립니다.



각종 신용카드 환영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수잔 솔티 여사가 현장을 찾은 많은 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

“먼 이방의 땅의 자유 위한 미군의 희생 잊지 않을 것”

제16회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28일 공식 개막된 가운데 수잔 솔티 여사를 비롯한 대표단은 오후 일정으로 3시경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헌화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위해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한자유주간이 워싱턴DC에서 개막되는 해에 대표단은 반드시 첫날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하고 있으며 이날도 북한자유주간 참가자 및 대표단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하며 ‘자유북한’이라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대표단은 기념공원 한 가운데 조성한 강철로 만든 19개의 미군 병사 조형물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

였다. 특히 헌화식에서는 전 북한군 출신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자유와 통일을 위해 결성된 북한인민해방전선 소속 탈북자들이 군복을 입고 미군들의 희생을 기렸다.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중훈 사령관은 “6.25 당시 미군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먼 땅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했고 결국 수 많은 이들이 자유를 위해 용맹스럽게 피흘려 싸우다 죽었다”면서 “이 자유를 위한 값진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공원에 위치한 참전용사 추모비에는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김대원 기자

“미주 한인교회, 세상적인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워싱턴주 은퇴목사회 정기모임

워싱턴주 은퇴목사회(회장 문창선 목사)는 지난 23일 웨드렐웨이 해송식당에서 4월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미주 한인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날 설교한 허인회 목사는 창세기 48:17-20절을 본문으로 ‘내 아들이 나다 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중 이스라엘의 전통인 장자가 모든 축복을 계승하는 장자권의 법칙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예브라임을 더 축복한 사실을 들어 “야곱의 축복은 세상적인 방법, 즉 맘모니즘의 방법을 따라 축복하지 않고 오직 신령한 영의 눈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했다”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와 선교가 돼

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목사는 “미주 한인 교회 목회자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영안이 밝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과 사역을 위임한 후 겸손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듯이 품어주고 기도하는 삶을 살자”고 당부했다.

이후 기도회를 통해 육신이 지치고 병든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며 총무 허인회 목사가 회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면서 친교를 가졌다. 한편 워싱턴주 은퇴목사회는 “은퇴한 목사는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소개하며 회원 가입을 원하는 은퇴 목사는 총무 허인회 목사(404-932-2729)에게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폴 원 기자

재미 고신 북서노회 최병걸 목사 신임 노회장 선출



제 44회 재미 고신 북서노회

재미 고신 북서노회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웨드렐웨이 제일장로교회(담임 최병걸 목사)에서 제 44회 노회를 개최했다. 노회원들은 투표를 거쳐 신임 임원진으로 노회장에 최병걸 목사, 부노회

장에 한만수 목사, 서기에 조상우 목사, 부서기에 이병조 목사, 회록서기에 흥건 목사, 부회록서기에 채수창 목사, 회계에 임종학 장로, 부회계에 김문영 목사를 선출했다.

교회 및 선교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아침예배 오전 9: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청년부/도모임 (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인(2세)를 확립하며, 이인(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과 Eden 교차로)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7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어린아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6:00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인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담임 채동선 전도사
행정 안기정 목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1818 S. Western Ave., LA, CA 90006
T. (213)352-2832 www.magachurch.com

대예배 1부 오전 8: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정병노 담임목사

새 일 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열방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ahan.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영양부/유년부 오전 10:50
중고등부 오전 11: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0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곽건섭 담임목사

에은장로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u@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매세움) 오전 11:00

정창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할,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리더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 신 담임목사

주향 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4부예배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관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청년부 오전 11: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령으로 깨어 성령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힘쓰는 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가(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 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5:30
아침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의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ong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라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도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토) 汉语圣经班: 周二 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 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사별부 오전 8:4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토)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만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절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오명환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낙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5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 363-5887 Tel: (323) 837-09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org
e-mail: iccc.office@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음란한 퀴어축제의 본질은 차별금지법 제정”

6월 1일 대한문광장에서 반대 국민대회 개최



국민대회 준비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동성애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가 오는 6월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대한문광장에서 열린다. 5월 31일부터 이들 간 서울광장에서 열릴 서울퀴어문화축제 때문이다.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합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대회 국민대회 취지와 그 개최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먼저 국민대회 취지에 대해 조영길 변호사(조직원 전문위원장)는 “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와 평등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지만, 그 실상은 전혀 다르다”며 “인권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선정적이고 음란한 공연과 행위들이 남녀노소 서울시민들의 쉼터인 서울광장에서 온종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서울광장에서 결코 허용될 리 없는, 선정란 풍속에 반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공연과 행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비호와 서울시의 지원 아래 대낮 도

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낯뜨거운 광경들이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퀴어축제는 내용이 선정적이고 음란할 뿐만 아니라, 본질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제정되면, 양심, 건강, 보건, 교육, 사상, 학문, 종교 등의 이유로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혐오와 차별이 되기 때문에 금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동성애의 실상과 폐해를 정확히 알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가진 동성애 독재법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퀴어문화축제를 단호히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호수 목사(조직원 사무총장)는 국민대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 “서울시가 동성애 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더 이상 승인하지 못하게 하려면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국민대회에 많은 국민들이 참석해야 한다”며 “그래야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입법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황교안 대표

“북한 인권 개선이 통일의 지름길”

영화 〈퍼스트 스텝〉 상영회서 역설



(왼쪽부터 순서대로) 최공재 감독과 김성민 대표, 김규민 감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북한 인권 개선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한 인권”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 스텝〉 상영회에 참석해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선물하는 것이 저와 자유한국당의 역사적 책무 중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한 동포 2,400만은 헌법상 명백한 우리의 국민이다. 우리가 이들의 고통과 참상을 외면하고 손을 놓는다면 이는 민족적 관점에서도 옳지 않은 일”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야만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무엇보다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정권의 소극적 대응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 독재 권력의 인권 유린에 눈을 감고 침묵하는 일은 범죄에 대한 명백한 방조”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북한 인권을 말하면 남한의 화해와 평화가 깨진다고 하는 논리는 좌파 진영의 정갈 공색하고 치졸한 자기 변명일 뿐”이라며 “3년이 지나도록 문도 못 열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을 하루라도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여기계신 분들(탈북민)과 같은 때 탈북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피난오신 분”이라며 “(탈북민들과) 정서를 같이 하고 있다. 이분들의 위대한 인

권운동을 함께 계속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유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영화 〈퍼스트 스텝〉 제작진을 향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도 북한의 인권 지옥 참상을 호소하며 자유를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며 “동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시는, 정말 존경을 받을만한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상영회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박인숙 국회의원, 한마음프로덕션이 주최했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영화예술인들의 모임인 ‘씨네마당’이 주관했다. 황 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탈북민으로 이번 영화를 연출한 김규민 감독은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문화”라며 “한국에 와서 제일 황당했던 게 김일성과 김정일의 죽음은 모두가 떠들면서도 북한에서 죽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다. 이에 그 참상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자는 목적으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다. 영화 제작에 참여한 탈북민 김성민 대표(자유북한방송)는 “왜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은 남한에 가서 무얼 했느냐?’라고 물을 때, 그래도 ‘당신들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고 말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게리 하우겐 대표.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Rodrigo Valera Photography

“대규모 세대적 이동, 복음주의 내 ‘정의의 관점’에 변화 일으켜”

게리 하우겐 대표, 페이스 앵글 포럼에서 강연

국제 인권 단체인 IJM(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의 게리 하우겐(Gary Haugen) 대표는 “대규모의 세대적 이동이 정의의 문제를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마이애미 비치에서 진행된 페이스 앵글 포럼(Faith Angle Forum)에 참석한 하우겐 대표는 “장기적 관점에서 본 세계적 빈곤과 정의(Global Poverty and Injustice: Taking the Long View)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곳에 거대한 세대적 이동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가 참석한 페이스 앵글 포럼은 종교적 신념과 공공의 삶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한 모임으로 마이애미 비치에서 1년에 2번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하우겐 대표는 “1990년대 처음 IJM 설립을 도울 때,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의의 문제에 관해 의구심을 가졌다”면서 “정의를 원하는 우리의 제안들과 가난한 자들, 학대와 압제 받는 자들을 위한 우리의 싸움을 좌파적인 정치 어젠다, 진보적인 신학으로 여겨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제는 주류 복음주의 안에서 이러한 신학적 반대는 없어졌다고 믿는다. 특별히 40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의 경우, 더 이상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에게 정의에 관한 실제적인 대화가 없다면, 당신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젊은 복음주의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들은 현재 교회 공동체나 복음주의 단체의 대표가 아니며, 돈과 권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나 15년 안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차원이 다른 현상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JM은 1997년 설립된 단체로 개발도상국 내 빈곤층을 폭력으로 보호하는 사역을 해왔다.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이자 보수주의자인 마이클 거슨은 “하우겐은 ‘복음주의’라는 단어를 싸울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든 복음주의자”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하우겐 대표는 “나의 친한 친구인 마이클과 논쟁하고 싶지 않다”면서 “그러나 난 ‘복음주의’이라는 단어를 위해 싸울 의향이 없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은 형태가 다 잡혔으나 정의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다. 심지어 미가 6장 8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등 성경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내가 자란 교회에서 이러한 구절이 들어간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대학 공부를 위해 교회를 떠날 때까지 천 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러한 주제를 다룬 설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무엇보다 내가 다닌 교회의 사람들은 불의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1980년대 남아프리카의 데스몬드 투투 주교와 함께 일하면서 불의한 문제에 관한 성경적 적용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그는 “나는 정의의 투쟁에 헌신하는 나 자신의 신앙적 전통을 다시 얻게 되었다. 내가 제기한 성경의 내용들은 이같은 우선순위로 가득차 있다”면서 “내가 IJM 설립을 처음 도울 때, 2가지 목표가 있었다. 첫째는 나의 신앙적 전통이 ‘인권과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부터 거의 완전한 해탈’에서 이동하는 것과 성경적 전통을 강화하는 것, 둘째는 남아프리카에 세운 ‘의도적 영역 형성’의 공동체로서 이를 행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강혜진 기자

“인종 화합을 향한 미국교회의 긍정적 발걸음”

락 교회 마일즈 맥퍼슨 목사, 현지 언론과 인터뷰



마일즈 맥퍼슨 목사.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미국 락 교회(Rock Church)의 마일즈 맥퍼슨(Miles McPherson) 목사가 “미국 교회가 인종 화합을 향한 긍정적인 발걸음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맥퍼슨 목사는 최근 진행된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백인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인종적인 화해를 위해 협력해 왔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제 백인교회와 흑인교회는 이같은 논의가 수용할 만한 것임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맥퍼슨 목사는 앞서 ‘더 서드 옵션(The third option)’이라는 책을 통해 인종차별

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소개했다. 그에 게는 2명의 흑인 할아버지가 있었다. 할머니 한 분은 중국과 아프리카계 혼혈인이었고 한 분은 백인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너는 흑인이 아니야’ 라거나 ‘너는 백인이 아니야’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저서에서 그는 “이것은 내 평생에 집이 되었고, 나의 열정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마침내 이 문제에 관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려(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이름답도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명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람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금요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섬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 (310)715-9902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O.C, 엘바인 지역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이명이 담임목사

UBM 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애민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침년부 오전 9:30, 11:30
한아침(영아침)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토)/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죽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학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의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O.)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복의공동체 ALL IN JESUS 예수께 모든 것을 가는 복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를 맺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원생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신인사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00 (영아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상사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전 9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 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름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님여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북한 정권은 악마적... 자유 운동은 영적 전쟁”

[2019 북한자유주간] 한국전 용사 기념공원 헌화

제16회 북한자유주간 이틀남인 29일 오후 5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종교와민주주의연구소(The 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에서 북한자유주간 환영 리셉션이 진행됐다.

북한자유주간을 위해 한국에서 온 대표단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서 북한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저마다 신앙적인 발언들을 이어가며 북한 자유를 위한 현재 활동이 곧 영적 싸움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호스트를 맡은 종교와민주주의연구소 페이스 맥도널드 소장은 북한자유주간이 처음 열렸던 2004년부터 이 행사에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다. 그는 북한자유주간 참가자들을 향해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달라”면서 “저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마다 마음이 변화되고 북한을 자유케 하기 위한 마음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축복했다. 수잔 솔티 대표는 북한자유주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주간이 아닌 일간 행사였다고 설명하면서 “당시 북한을 위한 기도와 금식으로 하루를 살았다. 다윗의 장막에서 함께 했다. 북한자유주간은 하나님의 행사로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현 북한 정권은 악

마적”이라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한국이 독립운동을 할 때 기독교인이 주축이 됐었고 이런 기독교의 힘을 감정은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의 허광일 대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이 북한자유주간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면서 “지금 비록 위기에 처해있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 있는 3만3천여 명의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들의 목숨을 걸 것”이라면서 “김정은 정권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정훈 대표는 “대북 라디오로 계속 성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주민들 속에서는 지하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전달하는 것만이 수령을 신으로 믿는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그 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원 기자

“장마당, 북한 시민사회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



CSIS 빅터 석좌교수(오른쪽 첫 번째)가 북한 장마당 매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제16회 북한자유주간 둘째 날(29일), 위성사진으로 공식 집계된 북한 내 장마당이 436개이며 비공식 수까지 합치면 1천 개에 육박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는 북한 내에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다.

현지시간 이날 오후 2시부터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북한 내 여성과 장마당 매커니즘’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를 주관한 빅터 차 교수는 첫 번째 세션 ‘북한 내 시장과 시민사회’ 발표를 통해 위성사진으로 분석한 436개의 북한 장마당 실태를 분석했다. 그는 “북한 시민들이 오직 정부의 통제에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닌 그들 스스로 삶을 결정하게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에 따르면 CSIS는 기차역이 지역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판단, 북한의 모든 기차역 주변 지역을 분석했고 기차역과 시장간의 거리를 계산해 장마당의 위치와 개수를 파악했다. 차 교수는 특히 신의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장마당 형태를 분석하면서 “지역의 중심에서 5~6개로 형성된 주변 시장까지의 거리는 자전거로 30분 거리”라면서 “이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물건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시장에서의 가격 등 다른 새로운 정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류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헤리티지재단 올리비아 에노스는 “북한에서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장이 북한 사회의 평등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 당국의 방지에 의하면 결혼한 여성은 가정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직장과 일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없다. 북한 여성의 사회와 시장 참여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여성과 정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것은 놀라운 변화”라고 평가했다. 올리비아 에노스는 시장의 활성화가 가져오는 북한 주민들에게 끼치는 정신적 영향에 대해서도 “드라마나,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발전된 테크놀로지 등을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다양한 대안적인 생

각과 관념들을 접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북한 주민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그것을 좋은 의도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인권에 관한 책을 집필한 바 있는 미국 카톨릭대 교수 앤드류 여는 “정치학에서 이해하는 시민사회는 국가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생해 경제를 발생시키는 조직된 사회이고,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란 대중적인 두려움을 넘어서 단결된 행동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의 통제 안에서는 하기 힘든 일이지만 시장은 정부의 눈을 피해 상호교환과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은 서로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하게 된다”면서 “북한에 시민사회가 형성됐느냐고 물으면, 그 정의상 물론 대답은 ‘아니다’겠지만, 언더 그라운드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앤드류 여 교수는 또 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북한의 민간 통제 시스템 약화와 관련해 “시장은 북한 사람들에게 시장에 많이 참여할수록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개념을 구축하게 했다”면서 “현재 북한 현지 사정상 당에서 지정해 주는 일을 열심히 한다 해도 월급은 똑같은 것이고 충분치도 않을 것이지만 시장 참여를 통해 노동력과 부의 상관 관계를 알게 되고, 정부를 위해 쏟을 노력과 시간을 좀 더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일로 대체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앤드류 여 교수는 “모든 것을 정부에서 배급받던 시대에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시대가 됐다”면서 “여기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입시켜 온 말과, 내가 보는 현실에서의 큰 차이를 북한 주민들은 느끼게 되며,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말하는 것과 사적으로 생각하는 것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빅터 차 교수는 “시장에서 상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며 그들만의 법칙과 지위를 만드는 이 모든 요소들은 미래에 언젠가 북한이 열릴 때 시민사회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간 존엄성의 포기가 인권이라는 이상한 나라

한 대학에서 강연을 마치고 산 부인과 의사이자 낙태 경험을 가진 두 아이의 엄마를 만나서 낙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낙태시술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눈물을 보이던 그녀의 아픔이 엄마에 의해 살해된 여러 생명들의 표현되지 못한 원망처럼 필자의 양심과 감정을 파고들었다.

1977년 보스턴에서는 케네스 에들린(Kenneth Edelin) 박사가 자궁절개수술로 꺼낸 내용물(?)을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내용물은 모체에서 분리되어 세상에 나왔을 때 분명히 살아있었다. 피해자는 내용물로 취급될 수 없는 인간의 형상을 가진 귀한 생명이었다. 코네티컷주에서 1972년 있었던 재판(Abele v. Markle)을 통해 낙태수술로 모체 밖으로 나온 후 일정시간 동안 생존했던 태아들에 대한 기록이 27건이나 세상에 알려졌다. 그들 중 몇몇은 입양되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한 산부인과 의사가 염수낙태법 시술 후 산체로 태어나 버린(살아서 태어나길 원하지 않았던) 아기를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최근 원하지 않는 아기를 임신했을 경우, 이 아기를 살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졌다. 낙태 후에도 살아남아서 인간으로 살아간 경우도 있었던 미국의 사례들을 보았을 때 “인간의 형상을 가진 태아 살해와 영아 살해의 윤리적·법적 경계선을 인간이 정할 수 있을까?”라는 심각한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필자의 감정적·이성적 황망함과 분노는 과거 황우석 박사와 관련된 생명윤리 논쟁과 생명윤리법으로 전이되었다. 생명윤리를 강력하게 외치던 소위 ‘인간의 존엄성’을 떠들어대던 목소리 큰 인간 군상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이 유물론자임을 지적으로 자랑하던 자들과 신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연합하여 인간의 배아를 사용하는 연구에 대한 철저한 윤리적 통제를 주문했다.

덕분에 한국의 생명윤리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관련 연구에 대한 윤리적 규범통제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강력하게 제정되었다. 이 법은 연구를 위한 배아·난자·정자의 보존에 관한 사항과 폐기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이 정 훈 교수
울산대 법학과

까지 윤리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 법은 제1조에서 “인간과 인체 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배아”(胚芽)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發生學的)으로 모든 기관(器官)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細胞群)이라고 정의한다. 심지어 이 법은 난자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한 자를 처벌한다.

“인체유래물”(人體由來物)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배아”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조차도 다른 물질들과 다르게 법이 특별하게 취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특별히 존엄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의 규범근거이자 인류가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난자를 매매하는 행위까지 처벌하자고 외치던 그 윤리적 인사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오히려 이 위선적 인사들이 인권의 이름으로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 않은가? 생명권보다 더 중요한 인권이 존재하는가? 이것은 태아가 완전한 인간인가 여부에 대한 논쟁의 차원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 자체가 갖는 존엄성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윤리적·법적 논쟁이다.

인간의 형상을 갖춘 태아가 “배아”보다 더 하찮게 취급받고 심지어 살해당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한국의 법현상은 특정 이데올로기로 사법부 내에 사조적을 만든 세력이 법의 이름으로

헌정과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쫓불혁명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당연한 것일까?

이미 모자보건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기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이 정한 낙태의 법적 허용한계를 넘어서는 태아살해의 비범죄화가 여성의 인권 실행이라는 주장은 기본권의 근거인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

또한 생명윤리법이 “인체유래물”과 “배아”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 다른 물질과 다르게 존중하는 것과 유비적으로 형량해 보아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해석의 통일성, 그리고 헌법의 규범통제 차원에서 법질서의 정합성이 유지될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이다.

인간을 학살해서 혁명을 완수한다는 공산독재를 위대한 혁명으로 존경한다는 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에서, 또 특정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자들의 사조적이 사법부를 장악한 헌법과 법치 파괴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헌법해석의 통일성을 강요하고 있는 법철학자의 무력감은 이제 죄책감으로 변해 양심의 통증이 되고 있다.

음란한 방종과 무책임을 엄숙한 인권의 이름으로 그 정당화의 격을 높여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에 대한 심리적 죄책감마저 덜어주려는 도덕의 부정을 헌법의 이름으로 승인한 것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해서 인권을 실현한다는 미친 혁명가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이상한 불법의 나라를 헌법의 이름으로 용인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질 수밖에 없는 도덕적 책무로 인해 이 더러운 권력과 그 정당성을 상실한 부도덕한 법에 불복종하고 투쟁해야만 하는 것이다.

아동부와 고등부 사역자

선한목자교회는 LA 동부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아동부와 고등부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실 파트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1. 지원자격

- (1) 신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
- (2)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 (3) 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2.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신앙간증 포함), 추천인 2명 기재 요함 (관계, 연락처 포함 – 추천서는 소정의 서류 심사 후에 요청드립니다)

3. 주요사역

주일 예배 및 주중모임(금요일 7:30pm) 인도와 기타 관련된 사역

4. 제출하실 곳 :

iclarkmsn@gmail.com

To, Pastor Clark Choi / 최 클락 목사 - 교육부 담당목사

5.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선한목자교회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 (909)591-6500 | Info@sunhanchurch.com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제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인간의 근본적인 치료

비만의 개선

전립선 질환 개선 및 알츠하이머 예방

Cyclo-Z
세계최초
당뇨치료를 위한
생약제제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줄입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를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활동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인의 해아연(Zn)은 제거능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관련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연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을 낮추고,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연의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당뇨병의 합병증인 심장, 신장, 망막,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한점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순환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극한의 체내 아연(Zn)
흡수율과 지속력이 확보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연(Zn)의 흡수율을
향상시켜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의 Zinc Metabolism 연구결과
국내최초의 당뇨병 예방 메타분석의
인간 임상실험에 의해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임을 입증
하였습니다. 프로지(Pro-Z)는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임을 입증
하였습니다. 프로지(Pro-Z)는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임을 입증
하였습니다. 프로지(Pro-Z)는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임을 입증
하였습니다.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이면

43%(하지혈관)
37%(뇌혈관)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HbA1c) 6.5% 이하로 낮추면, 당뇨병 합병증 위험이 30% 감소합니다.

43%
하지혈관
병변 위험

37%
뇌혈관
병변 위험

21%
당뇨병
합병증 위험

14%
심장병
위험

12%
신장병
위험

순환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제적 권위, 40년간의 연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연구
• 40년간 당화혈색소(HbA1c) 연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연구

순환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 감수성 개선, 혈당 조절, 인슐린 분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여 당뇨 예방,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순환기 박사의 Cyclo-Z는 인슐린 감수성 개선, 혈당
조절, 인슐린 분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여 당뇨
예방,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순환기 박사는 아연의 당화혈색소(HbA1c)를 낮추는
효과를 극대화하여 당뇨 예방,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PRO-Z
Zinc Metabolism

PRO-Z
Zinc Metabolism

PRO-Z
Zinc Metabolism

백신은 아연의 흡수
효과를 극대화하여 당뇨 예방,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문의
전화

213.434.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 www.prozusa.com | prozusa@gmail.com

PRO-Z USA Inc.
미국 캘리포니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승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뜻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참된 자유와 분명한 방향이 있어서 누수되거나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라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 왕만 되면 됩니까?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직업을 보아도 목동,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주는 배달꾼, 하프를 연주하는 아르바이트생, 적의 최고 장수를 이기는 군인, 숨어 지내는 노숙자, 도망다니는 망명객, 그리고 왕, 참 많은 직업과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배달꾼이나 아르바이트생, 노숙자나 망명객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동행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졌습니다. 목동의 때에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것도 하나

진 유 철 목사
남성순복음교회

님의 뜻이었고, 배달꾼으로 나가 골리앗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일어났던 순간순간의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단기선교 팀을 보내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그 순간순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신앙의 원리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죽인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쁨 부어 세운 자를 손대지 않는다는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적당히 타협하며 그 여인을 출세의 사다다리로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때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다윗이나 요셉은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집게 같이 내일 일을 맞추는 예언과 같은 것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류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겠다고 하면서 고3 한 해 동안 예배 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오히려 예배에 성공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신앙의 원리들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이 물건을 주문할 것인가 아니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사업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업인지를 점검하고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순종으로 행하는 ‘가든지’의 단기 선교팀들과 ‘보내든지’의 사명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람!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숏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스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 383-3566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주보제작, 교회로고, 머그컵&텀블러
문의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 찬양 사역자 구함
■ 기타 연주 하시는 분
■ 드럼 연주 하시는 분
■ 바이올린 연주 하시는 분
■ 기타 악기 연주 하실 수 있는 분

문의 : (213)408-5819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결혼 야외 촬영 Free
계약에 관계없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께
무료로 촬영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정사진, 가족사진
Scott Kim Studio
213-810-4000 scottkimstudio@gmail.com
Kakao talk ID: scottkimstudio



목소리 재능 기부
현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스캇 김입니다.
교회에서 성우 같은 전문적인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LA 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주님미디어 새해맞이 이벤트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패키지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Stand X-Banner \$65
거치대포함
*사이트에서 샘플선택
Retractable Banner \$140
\$160 (디자인 포함)
A형 스탠드배너



주님미디어 새해맞이 이벤트
NEW YEAR EVENT
말씀 액자
\$35
16x16inch 기준
*주님미디어에서 직접 쓴 손글씨로 제작된 말씀액자입니다.
주님미디어에서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주보제작, 교회로고, 머그컵&텀블러
문의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북한, 이미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사회로”

‘북한 내 여성과 장마당 매커니즘’ 워크숍에서 탈북 여성 증언

장마당, 고난의 행군 이후 본격화...북한 경제 80% 담당 주민들 사이에 시장 활성화...부동산 중개업, 투기까지 장사는 불법, 그러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리 발생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현지시간 29일 오후 열린 제16회 북한자유주간 ‘북한 내 여성과 장마당 매커니즘’ 워크숍에서는 세 명의 탈북 여성들이 ‘장마당’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은 북한 장마당은 고난의 행군 이후 본격화 됐으며, 국가의 강제 노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여성들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시장으로 나선 것이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탈북 여성들에 따르면 현재의 장마당은 북한 경제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한 탈북 여성은 장마당의 실태와 관련 “현재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인 소비자 시장, 생산재 시장, 금융 시장, 노동 시장, 주택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면서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탈북 여성은 “지금은 공식적으로 북한 내 시장이 약 500개 정도이고 매뚜기 시장(단속을 피해 옮겨 다니는 시장)까지 포함해서 1,000개 정도 된다”면서 “중국 국경지대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들은 큰 돈을 벌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금융시장까지 형성됐다. 현재는 환전 사업까지 하는 큰 손들도 출현했다”고 했다.

아래는 이날 워크숍에서 탈북 여성들이 장마당에 대해 발표한 내용.

여성1: “실제 사회,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라, 사회주의의 가식”

1996년 여름에 제가 장마당을 처음 경험했다. 배급소에서 쌀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주린배를 잡고 계속 일을 해야 했다. 북한에선 아내들은 직장이 없으면 집에서 쉬어도 되지만 남자들은 무조건 나가서 일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그러나 고난이 시작되면서 나라에서 배급을 하지 않아도 남자들은 일을 해야 했고, 그런 계기로 집에 있는 여성들이 대신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제가 맨 처음 장마당을 경험한 것은 북한의 가뭄이 절정이었던 때이다. 저는 당시 중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직장을 갖게 되었고 실제 사회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얼마나 다른지, 사회주의의 가식을 알게 됐다.

당시 사람들은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집에 있는 장롱이나

숫가락 젓가락 등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은 처음에는 썩어빠진 자본주의 정신을 뿌리 뽑고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단속을 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팔던걸 들고 도망 다녀야 했다. 이런 장마당은 ‘매뚜기 장’이라고도 불렸다.

그러나 장마당이 점점 활성화 되었고 북한당국은 1999년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 수 있게 하였다. 안전부는 대신 자릿세를 받기 시작했다. 당시 제 친구 중에 부모님이 쌀을 구하러 다니다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어 장사를 시작한 이가 있는데, 싱글 여성은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몰래 장사를 하며 매일 쫓겼고 팔던 물건을 뺏기기도 했다. 결국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한 후에야 장마당에 설 수 있었다.

북한에서 유치원에서 일했던 저도 주말엔 장마당에서 일했다. 푼돈을 겨우 버는 걸로 생계가 어려워 돈을 더 벌기 위해 디젤 오일을 팔기 시작했다. 김정은의 단속을 피해 디젤 오일을 팔았다. 걸리면 사형당할 수 있었지만 이윤이 많이 남았기에 사람들이 많이 팔기 시작했다. 저도 디젤 장사를 시작했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하지만 몇 달 뒤 디젤유를 팔던 주민이 사형에 처해지면서 주춤하게 되었다. 김정은의 선물을 팔았다는 죄로 사형을 받은 이들도 있다.

여성2: “북한, 돈 있는 사람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1997년 담배장사를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을 살았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담배를 남자들에게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 마음을 놓고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담배 파는 행위가 발각되면 경찰들이 물건을 회수하고 막았기 때문에 경찰 눈을 피해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장마당에서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역전을 돌며 하루하루 살았다.

이미 북한은 돈 있는 사람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녀자들은 다른 곳에서 쌀과 음식을 받아 그것을 팔아 하루하루 장사하며 살았다. 다만 마음 놓



현재 북한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다는 물건들 ©기독일보

고 팔 수는 없다. 경찰들이 물건을 회수하고 돈도 다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항상 경찰 눈을 피해야 했다.

물건과 돈을 빼앗기면 집안이 굶는 것이 생활이었다. 그래서 북한 여성들은 강해져야 했다. 다만 경찰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살아야 했다. 바칠 뇌물이 없으면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야 했다. 또한 도둑들이 많아서 물건을 빼앗기기도 했다. 마음놓고 장사하는 그날이 오길 소망하면서 살았다.

여성3: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 고위층에선 아무 의미 없어”

2003년 7월 제가 탈북할 때도 장마당이 있었는데 최근 북한의 장마당에서 판다는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저는 북한에 살 때 계급적 토대가 좋아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당의 보호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살았고 충성을 다졌었다. 그러나 300만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자 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고난의 행군이 자본주의를 북한 주민들에게 심어준 계기가 됐다. 김일성의 죽음은 ‘그도 인간이구나, 김정은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었다. 94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70, 80년대는 농토산물 시장 밖에 없었다. 당시 시장은 아무 볼거리 없는 곳이었다. 그러던 1995년 고난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시장의 가치를 알아가고 굶어 죽는 집들이 늘어나고 동네에는 술장사와 두부를 만들어 파는 자들이 많아졌다.

여성들이 집에서 만든 식량을 역근처에서 파는 것을 계기로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식량을 바쳐가는 물물교환이 이뤄지기도 했다. 처음에는 돈이 될 수 있는 집안의 물건을 팔다

가 기차를 타고 팔 물건을 구하러 다녔다. 더 나중에는 바다에서 싼 물고기를 사서 비싸게 팔았다.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움직였다.

중국 국경지대에서는 친척방문을 구실로 보파리 시장에서 도매로 물건을 사서 파는 장사꾼들이 늘어났다. 이 때부터 없는 것이 없는 시장이 되었고 자본주의 시장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북경에서부터 들어오는 물건들을 운송하는 장사꾼들이 늘어나는데 중국물건을 가득 채워왔다가 또 갈 때는 지역 특산물인 말린 오징어 같은 물건을 가지고 가는 식이다.

당시 장사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장사를 하면 체포해 갔다. 그러나 경찰도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뇌물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주는 범죄의 나라로 변화됐다. 장마당을 막을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을 통제해야 하는 경찰들이나 공무원들도 배고팠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에는 소비자 시장, 생산재 시장, 금융 시장, 노동 시장, 주택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국가가 합법적으로 허락한 것은 아니고 은근슬쩍 눈감아 준 것이다. 국가 소유의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돈을 받고 국가 몰래 집을 사고 팔면서 지금은 부동산 투기나 중개업 및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다.

생산재 시장은 수 많은 중국의 원단들로 해서 시작했다. 주민들은 옷과 커튼 등이 필요로 했고 디자이너들은 원단을 미싱하는 여자들을 시켜 옷을 만들고 신발을 디자인 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2002년 7월 시장 관리소가 생겨나고 북한은 장사꾼들에게 자리세를 받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시장이 이제는 80%의 북한 경제를 담당할 만큼 확산

되어 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시장이 500개 정도이고 매뚜기 시장까지 포함해서 1,000개 정도 된다고 한다.

처음에는 보파리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물건을 화물차로 나르는 일꾼들을 고용하기도 한다. 국가의 운송수단을 믿을 수 없던 사람들은 물건을 경쟁자들보다 더욱 빨리 운송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화물을 운송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만들어낸 버스와 택시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중국 친척의 물건을 도매로 팔아 주던 자들은 이제 물주가 되어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물건을 팔고 중국으로 돌아가려면 중국 돈으로 환전해야 하는데 개인들이 주변에서 환전을 시작했고 이들이 북한의 재벌로 성장했다. 그들은 앉은 자리에서 돈을 바꿔주면서 신용사업을 하고 있다.

돈이 사람과 직업 만들었다.

이런 시대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북한 최고 대학이라 불리는 김일성대학에 입학했다. 입학하면서 돈의 용도에 대해 또 권력에 대해 사심을 가지게 되었다.

돈이 사람을 만들고 직업을 만들었다. 간부의 자식이 90%인 우리 대학생들은 배고픔도 몰랐고 죽을 먹어 본 사람들이 없었다. 죽어가는 북한의 주민들이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방학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놀란 것은 국경이었던 고향의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었고,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물주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가족 백그라운드 가 안 좋아 대학도 못 갔던 친구는 장사를 시작해 아파트까지 사게 되게 되었다.

강영숙 기자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19년 봄학기 학생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에서 2019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집과정

◆학사 과정 (B.Th/B.A)

- 신학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석사 과정 (M.Div/M.A)

- 교역학석사
- 신학석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박사 과정 (D.Min/Ph.D)

- 신학박사
- 선교학박사
- 기독교상담철학박사
- 기독교교육철학박사

수시 입학 가능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A, CA 90057 | TEL: 310-678-6836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참,(진리의 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96학점
	■ M.A 석사과정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가능
- 2)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 수여가능
- 3)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 (학점교환 가능)

수시
입학
가능

입학상담: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고베주얼그룹의 진주 이야기! 그 탄생과 16년의 발자취

“사람이 한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살다보면 유혹도 많고 시련도 많아 넘어서기 일쑤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길을 걷는 것, 그것은 꿈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고객들에게 아름다움과 희망을 선물해주고 싶은 고베주얼그룹의 지치지 않은 꿈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지난 15년간 직수입, 직세공, 직판매 해온 진주 전문업체 ‘고베펠’이 각종 진주보석 등 총 1만여점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어버이날 맞이 감사행사를 연다.

행사는 5월 9일(목)부터 11일(토)까지 로텍스호텔 2층 특설매장(3411 W Olympic Blvd, LA, CA 90019, 올림픽과 그래머시)에서, 5월 12일 홀리데이 인 부에나팍(Holiday Inn Buena Park)에서 열리며, 이번 행사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가격대의 제품부터 최고급 프리미엄 상품에 이르기까지 총 3천여점의 다양한 제품을 전시할 인판매 한다. 게다가 500불 이상 구매고객에는 2줄 진주목걸이를 ‘공짜선물’로 준비했다.

라스베가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초저가 라인 반지천국의 이번 어머니날 맞이 진주보석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세공기술과 진

정가 1,499불하던 7밀리-7.5밀리 진주 비드 두줄 목걸이를 단돈 259불에 판매하는 놀라운 세일을 펼치기로 했다. 셋째로는 정가 1599불짜리 8밀리에서 8.5밀리 비드 목걸이를 299불에 할값 처분한다. 그야말로 초저가 라인 반지천국이 출범하면서 행사장은 진주보석이 물반고기반으로 어머니날을 맞아 귀한 선물 준비에 안성맞춤으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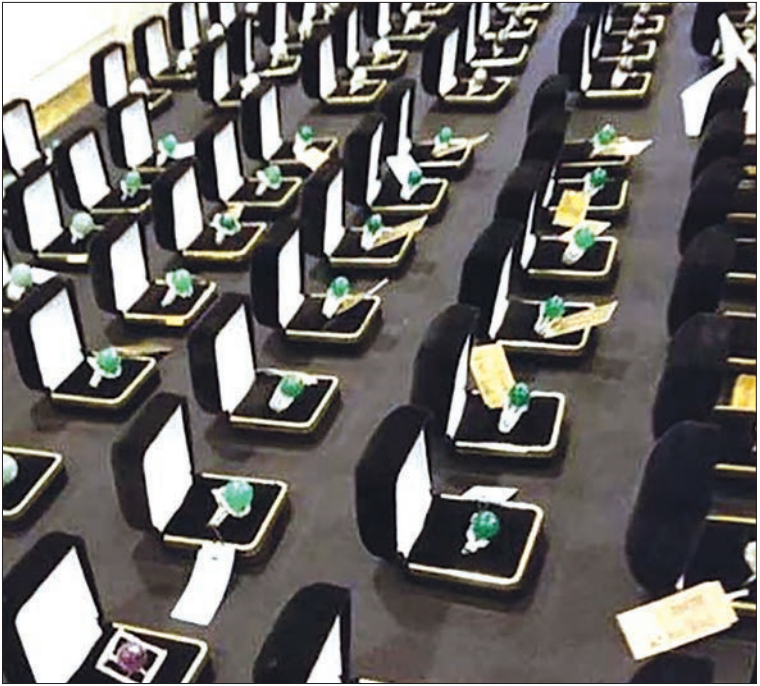
최근 출범한 고베주얼그룹의 프리미엄 라인인 헬렌 아이꼬의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3종 세트진주보석도 빠짐없이 전시돼 눈부신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반지천국은 특히 최근 큰 인기를 끌면서 강남 세공 사파이어와 루비, 에메랄드 등 유색 보석은 50%에서 80%까지 특별 세일을 해 어머니날을 맞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날 맞이 선물을 아직 정

내 보석상들의 요청으로 일본 진주를 구입해 가져다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그녀가 진주와의 인연을 맺게 된 계기다.

세월이 흐른 후, 본격적으로 뉴욕에서 소규모로 진주사업을 시작했으나 진주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사업을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의 도전은 끝나지 않고, 2004년 라스베가스로 건너가 ‘고베펠’이라는 이름으로 재도전한다.

미주 전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4년 내내 적자를 면치 못했다. 미국 각 주마다 다른 스타일의 흐름이 있는데, 이를 따라가지 못했고 한국 여성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할 것이라는 예상이 빚나갔기 때문이다. 시행착오를 겪고 백만불 이상의 손해를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을 선택, 오늘날 고베주얼그룹이 탄생하게 됐다.



고베주얼그룹이 5월 9일(목)부터 11일(토)까지 LA 로텍스 호텔 2층에서, 5월 12일(주일) 부에나팍 홀리데이 인에서 가든 룸 1에서 진주보석쇼를 연다.

진주를 수입하고 한국공장과 연결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 그룹의 성공비결은 진주 제품을 패션 주얼리 대중화 한 ‘진주 비드 목걸이’였다. 이 비드 목걸이는 일본 와이어로 제작하고 특수 마감재를 사용해 아주 탄탄하고 찰랑거리는 장점이 있고 여성들의 목선을 더욱 아름답게 돋보이게 한다.

이 비드 목걸이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고, 그동안 쌓여있던 많은 빛도 한번에 갚을 수 있게 됐다. 이후 다량의 비드 목걸이를 쉬지 않고 제작했고 중국,베트남, 알래스카, 하와이, 캐나다 등으로 시장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올해 10월에는 서울, 부산, 대전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아왔다. 그리고 헬렌 김 매니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셨네요. 제가 한국에서도 이런 행사를 본 적이 없어요. 이민생활이 녹록하지 않았는데 오늘 와서 보니 정말 자랑스럽고 힘이 됩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늘도 어디선가 자신을 기다릴 고객들을 생각하며 절대로 주저 앓을 수 없으며, 오늘도 고객들에게 아름다움과 희망을 선물해 주고자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진주보석 쇼 일정은 다음과 같다.

엘레이 한인타운
일시: 5월 9일(목)부터 11일(토)
장소: 로텍스호텔 2층 특설매장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올림픽과 그래머시)

부에나팍
일시: 5월 12일 (일)
장소: 홀리데이 인 부에나팍
Holiday Inn Buena Park Garden 1 Room (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91번과 비치 만나는 곳)



주메카인 일본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 진주 보석류 3천 5백여점을 50%에서 최고 80%까지 특별 세일하게 된다.

특히 고베주얼그룹이 직접 제작 세공한 진주 목걸이 등 비드류는 무조건 최고 80% 특가 세일을 하게 되며, 한국에서 특별 세공한 진주 팔찌 등 2019년 신제품 500여점도 선보이게 되면서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반지천국의 진주 쇼에는 다양한 형태의 진주 팔찌와 반지가 대거 전시되면서 기대해도 좋다는 관계자의 말이다.

이와함께 반지천국의 3가지 업투 80%세일 특가 비드 품목은 이러하다. 첫째는 종전 499불에 파는 진주 비드 목걸이 7밀리에서 7.5밀리의 경우 80% 세일해 단돈 99불 즉 공장도가로 세일하기로 했다. 둘째는

하지 않았다면 다가오는 진주보석쇼 행사장에 한번 둘러봄직해 보인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고베주얼그룹은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고베펠 탄생과 지난 16년 동안의 발자취에 대해 밝혔다.

든든한 버팀목 헬렌 김 총괄 매니저
고베주얼그룹이 있기까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헬렌 김 총괄 매니저가 있었다.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달렸지만 계속되는 적자에 난항을 겪던 고베펠,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같은 목적으로 일어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마다 고베펠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젊은 시절을 일본에서 보낸 그녀는 그곳에서 대학을 졸업해 일본회사에 취직했다. 취직 후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 일이 많아지고, 한국

16년의 노하우, 진주 하나만 바라보며
16년 동안 오로지 진주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들이 버틸 수 있던 것은 ‘고객들에게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이 그룹만의 자체 제작을 통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선보이며, 여러 주를 다니며 진주 행사를 열어 고객들과 직접 만나 중간 마진 없이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이런 혜택은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단골 고객이 많은 것도, 1년에도 몇 차례 디자인을 연구해 항상 새로운 제품으로 고객들을 찾아뵙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베의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도 큰 몫을 차지한다.

고베주얼그룹의 본사가 위치한 라스베가스는 세계적 호텔, 유명 브랜드 직영점이 몰려 있어 그 어디보다 앞선 디자인을 선보이는 곳이다. 그래서 다양한 영감을 받아 세련되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탄생된 디자인을 한국 공장에서 제작하고, 진주의 50%는 일본 고베지역에서 직접 가공된 것들을 사용한다.

고베주얼 그룹의 인기 비결
뉴욕을 떠나 라스베가스로 본사를 옮긴 후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한국에서 수업하는 체제를 전면 중단하고 일본 고베에서 직접



THC Free
환각기능없음

Dietary Supplement

대마햄프함초환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신이 내린 항암식물
대마 함초환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 각종 항암 식품으로서 최고의 효과
※ 당뇨 혈당수치 정상화에 크게 도움
※ 심장마비, 뇌졸중에 적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데 도움
※ 대장에 도달해 나트륨을 배출해 내기 때문에 숙변 제거 및 대장암 치료 예방에 효과적
※ 햄프함초에 함유된 베타인(betain)성분이 혈관 청소를 도움

함초는 Baja California 유네스코 지정 청정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제품은 질병을 병리학적으로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건강보조식품입니다.

USA MANUFACTURED IN THE USA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Dietary Supplement

Hemp HAMCHO

대마추출물 Hemp Oil

Natural Mineral Glassort
Hemp Oil & Seed Extract (Cannabinoids)
Contains 35%

180 TABLETS

\$250 +tax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조 규 면 박사 Ph.D.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Korea Particle Therapy Cancer Center
Chairman & CEO / 햄프함초 제품 개발자

CBD BAJAHAMCHO Inc. www.hempbiousa.com Tel.213-605-2772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SPRING SPECIAL SALE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7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Or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31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8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7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